

美國 大學에서의 研究와 教授生活

金 鎮 殷

(워싱턴 카톨릭大 教授)

일반적으로 大學의 3大機能으로 教授, 研究, 奉仕活動을 들게 된다. 그 중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일은 大學교수의 중요한 使命으로 兩者는 不可分の 關係에 있으면서 相互補完的이며, 學問發展의 不可缺한 要件이다. 특히 美國 大學에 있어서 교수들에게 가장 큰 重壓感을 주는 것은 “Publish or perish” 정책이다. 즉 專門의 論文을 學術誌에 發表하거나 著書를 出版하지 않으면 교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論文 한 편을 出版하기 위해서는 研究를 해야 하고 研究를 하기 위해서는 研究費를 조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研究費를 따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때 교수들에게 주어지는 心理的 負擔은 더욱 加重된다.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을 강의준비와 교수방법을 개발하는 데 쓰지 않을 수 없고, 더우기 碩士와 博士課程의 學生을 지도하는 경우 研究를 指導하면서 가르쳐야 하는 교수들의 負擔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다음은 이러한 緊張과 負擔을 안고 美國 大學에서 生活하고 있는 筆者가 留學生活을 거쳐 외 國인으로서 그곳에서 體驗한 研究와 教授生活의 一面을 소개하고자 한다.

I. 留學生活

1969年 9月初 오직 博士學位를 獲得해야겠다

는 一念으로 留學길에 올랐다.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教育行政學을 專攻하여 1973年 12월에 그 目的을 성취했다. 마침 恩師이며 前職 機關長이었던 白賢基 博士님의 강력한 추천과 각별한 協助로 첫학기부터 指導教授의 研究課題를 돕는 週當 20時間짜리 Project Assistantship을 받을 수 있었으며, 授業料 減免을 받아 經濟的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첫학기 첫시간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무척 緊張되었다. 그것은 교수의 강의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해 가야 할 숙제에 대한 내용조차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筆者의 회화실력이 不足했기 때문이었다. 강의에 따른 討議에도 參加하지 못하고 꿀 먹은 벼어리처럼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2週後에 제출한 critic paper (다른 사람의 研究物이나 論文을 읽고 批評을 한 것)에 A⁺를 받고 「너는 교실에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좋은 영어로 paper를 잘 썼다」는 評을 들었을 때는 참으로 놀라운 感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후부터 더욱 勇氣百倍하여 두려움 대신 自信感을 갖고 공부에 임할 수 있었다.

學科目 선택은 先輩의 충고에 따라 最少로 하는 대신 最大의 成績을 올리는 方向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첫학기부터 좋은 成績을 받아 指導教授의 信任을 받았으며 卒業할 때까지 財政

의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外國學生에게 요구하는 英語科目을 택했을 때 일이다. 들쭉 학기의 英語點數가 첫번째 학기의 그것보다 낮게 나왔다. 그런데도 指導教授가 學科目 成績이 다 좋으니 더 이상 英語科目을 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면제를 받은 일이 있다.

筆者의 留學生活은 比較的 平易했다. 韓國에서의 二重三重 여러 가지 하던 일에 비해 오직 공부에만 熱中하게 되니 心身이 安易했고 더욱 더 學業에만 專念하게 되었다. 그러나 學期中은 물론 放學中이라 하더라도 잠시도 緊張感에서 해방된 적은 없었다. 남들은 學期中에도 정구를 하는 등 열심히 운동을 하며 學期가 끝날 때마다 自動車로 旅行을 떠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筆者의 경우엔 공부외엔 그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 모든 課程을 거의 마치고 學位 論文을 쓰는 段階에서 겨우 천막과 캠핑 도구를 장만하여 온 식구와 함께 캠핑을 갔을 정도이다. 조그마한 연못가 한적한 숲속에 천막을 치고 석유콘로에 밥 짓고 찌개를 끓이며 석탄불에 양념을 재어 간 고기를 구어 먹는 맛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筆者의 學位論文은 “韓國教育發展을 위한 國家計劃過程의 分析”이었는데 먼저 文獻研究를 통해서 計劃過程과 教育發展에 관한 概念的 模型을 만들었고 이에 맞추어 50年代와 60年代의 政治·行政 變化에 따른 計劃活動과 教育의 量的 成長 및 質的 變化를 記述의으로 分析하였다. 結論의으로 韓國의 政治的 指導性的 변화와 行政的 適應은 國家의 教育計劃 活動을 促進했고 이는 또한 직접 간접으로 韓國 教育發展에 至大한 役割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60年代 政治指導者의 發展의 政策志向과 企劃行政 體制的 變化는 教育計劃活動을 새로운 次元으로 끌어올렸고 國民들의 教育熱과 더불어 韓國教育을 學校體制, 教師教育和 訓練, 學生數 增加 등 比較教育學의 見地에서 最終發展段階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둘째 時間的으로 볼 때 50年代 李政權下에서의 教育計劃機能은 文教部內的 한 課에서 關望했으며 教育의 機會均等 및 社會的 要求를 充足

시키기 위하여 義務教育計劃을 수립·실천한 것이었다. 한편 60年代의 長期綜合教育計劃은 教育의 效率性和 質的 變化를 위한 綜合的이고 戰略的 機能을 수행하게 하였다. 計劃目標에 따라 學校體制教育課程을, 教師教育面의 質的 向上을 招來했고 上級學校教育을 위한 量的 팽창은 政府의 統制에도 불구하고 推定目標을 上廻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종래의 教育計劃은 教育의 量的 成長과 質的 向上的 均衡적 發展을 도모하고 教育에 대한 社會的·經濟的 要求를 充足시키는 方向으로 나아 갈 것으로 展望했다.

II. 研究生活

筆者의 研究生活은 5.16직후 前 中央教育研究所에 研究助員으로 入所한 데서 비롯된다. 留學을 떠나기까지 10年 가까이 學校行政에 있어서의 人間關係, 教育計劃樹立, 教育行政制度의 改善, 義務教育施設活用, 大學教授開發 및 마을文庫의 效果 등 10餘종의 研究課題에 參與했었는데 이러한 研究經驗은 美國에서 공부할 때 term paper를 作成하거나 論文을 設計하고 組織하고 發展함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美國에서의 本格的인 研究生活은 學位論文을 마치고 동시에 위스콘신 연구개발원(Wisconsin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Cognitive Learning)에 研究員(Research Scientist)으로 採用된 데서 시작되었다. 筆者가 참여한 研究課題는 同研究所에서 개발한 個別化 教育프로그램(Individually Guided Education Program)을 推進함에 있어 필요한 領域으로 家庭-學校-地域社會의 유대강화를 위한 理論的 基礎 및 實際方案을 모색하는 것이었는데 두 教授가 責任 研究者(co-project Directors)이고 그 밑에 7~8명의 研究者가 가담하고 있었다. 筆者에게 주어진 課業은 400여편의 文獻資料를 읽고 要約한 후 理論的 現況(The State-of-Art)에 관한 報告를 作成하는 일이었다. 1年餘에 걸쳐 草稿를 完成하고 그곳을 떠났는데 그 후 theoretical paper로 出版되었으며 家庭-教授-地域社會 연계에 관한 研究者들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되었다.

그 이후의 研究生生活은 Indiana大學校에서 推進하고 있는 職業技術教育經費效果 分析을 위한 責任研究員(Project Director)으로서 이루어졌다. 1975年 여름부터 1980年 여름까지 5年 동안 다음과 같은 研究課題를 推進했다.

1. Development of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Model and Administrator's Manual for Secondary Vocational Programs

2. Development of a Cost-Effectiveness Benefit Analysis Model for Post-Secondary Vocational Programs

3. Diffusion of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System for Improving Secondary Vocational Program Management

4. National Priority # 1 Project Developmental Strategies and Evaluation Techniques for Improving the Cost-Effectiveness of Vocational Programs

5. Federal Policy for and Impact Studies of R & D Projects in Vocational Education

이러한 一聯의 研究題目에 나타난 것처럼 Indiana 대학에서의 초기연구는 中等 및 專門大學의 職業技術教育 프로그램의 經費·效果 또는 收益性 分析을 위한 概念的 模型과 새로운 測定方法 및 公式를 개발하는 데 열중했다. 이어 聯邦政府의 補助를 받아 各州 및 地方教育委員會의 職業教育行政官들에게 그들의 教育프로그램의 成果를 評價하는 데 筆者가 개발한 方式을 活用하도록 現職研修를 實施했다. 全研究報告書는 教育資料·情報센터(ERIC)에 저장되었고 要約된 部分은 專門의 學會에서 發表되었으며 學會誌에 出版되기도 했다. 그 중 專門大學 職業·技術教育프로그램의 經費·效果 및 收益性 分析에 관한 報告書는 Ohio 州立大學이 聯邦政府와의 契約下에서 附設한 職業教育研究所에 의하여 全國的인 普及을 위해 選定한 6個 最優秀 報告書 中の 하나로 選定되어 本人에게는 큰 榮光이다.

美國에서 聯邦政府나 州政府에서 研究費를 支給할 때는 自己들이 필요하거나 教育上 重要한 研究題目을 提示하여(request for proposal) 公開 모집하는 形式으로 한다. 全國的으로 해당분

야에 관심 있는 專門家들이 제출한 研究計劃書를 審査하여, 하나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適當한 수를 選定하여 一定期間 동안 研究를 완료케 한다. 대개의 경우 1年間이며, 2~3年 長期課題인 경우도 있는데 長期課題라 하더라도 自動的으로 研究費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每年 再審査 과정을 거쳐 지급하게 되어 있다.

上記한 研究課題는 筆者 單獨의 努力으로 州政府와 聯邦政府로부터 經費를 거쳐 획득한 研究費로 充當되었는데 自身이 研究費를 確保하지 못할 때 現職을 떠나야 하는 狀況下에서의 研究活動은 生計維持와도 直結되는 것으로 그야말로 필사적인 努力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筆者의 經費效果의 分析模型을 다른 管理體制(PPBS, MBO, MIS, Accountability 등)와 聯關지어 “職業·技術教育의 計劃과 評價”라는 科目을 개발하여 大學院生들에게 가르침으로써 責任研究員外에 教授職의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實驗의 교수 경험은 “나도 영어로 강의할 수 있다”는 自信感을 갖게 했으며 그간 쌓아 온 研究業績과 더불어 그 후 tenure track의 교수직을 얻는 데 획기적인 役割을 했다.

Ⅲ. 教授生活

美國 大學에서 教授任用은 대체로 選定委員會(Search Committee)를 구성하고 新聞이나 專門誌 광고란을 이용하여 全國的으로 應모자를 구한다. 志願者들의 배경과 업적 등을 심사하여 가장 적격자로 인정된 세 사람을 選定하여 面接을 實施한다. 이때 가능한 한 全教授를 만나 보게 하며, 小委員會에서 全體的인 意見을 綜合하여 優先順位를 정하고 教授會議에 提出한다. 그러던 學長이 教授會議의 同意를 받아 總長에게 最適者를 推薦함으로써 決定된다. 처음 任用할 때 2年 내지 3年 契約으로 하며 4年까지 2회 또는 1회의 再任用過程을 거쳐 tenureship을 申請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過程에서 탈락되는 경우 1年內에 다른 職場을 찾아 떠나야 한다.

Indiana大學校로부터 워싱턴시에 있는 Catholic大學校로 옮김으로써 筆者의 教授生活은 本格的으로 시작되었다. 教育行政 分野의 教授職

은 다른 分野와 달리 大學院過程에 局限되어 있는 만큼 자리가 限定되어 있으며 더구나 教授資格으로 博士學位뿐만 아니라 校長이나 教學長 등의 行政經歷을 요하는 故로 筆者와 같이 實務行政經歷이 없는 경우 教授職을 얻기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現在 재직하고 있는 大學에서 行政經歷보다 博士課程에 있는 學生들의 論文을 指導할 수 있는 研究經歷을 더 考慮했기 때문에 운 좋게 現職을 얻을 수 있었다.

가르치는 責任量은 한 學期에 大學院 課程의 두 科目(3학점)이며 4~5명의 論文을 指導하면서 또한 다른 教授의 指導下에 있는 學生(5~6명)들의 論文計劃書 審査에 參與해야 한다.

學科目 강의 방식은 教授에 따라 다양하지만 筆者는 參考書籍을 중심하여 강의요목을 작성하고 2시간반 내지 3시간의 한 session에 한 제목씩 다루며 대체로 강의 절반 토의 절반의 形式으로 한다. 講義는 概念的인 模型이나 理論의 背景을 說明하는 데 중점을 두고, 討議에 들어가는 學生들의 각기 다른 배경과 現職經驗에 비추어 實際的 접근과 應用面에 초점을 두도록 인도한다. 博士課程에 있는 學生 5,6명이 등록했을 때에는 강의 이외에 선정된 教科書를 한 章씩 읽고 와서 요약·발표케 하며 토의를 하게 하기도 한다.

宿題는 두 paper를 요구하는데 첫째는 專門인 學術誌에 게재된 가능한 한 最近의 研究物이나 paper를 선정하여 研究題目에 따른 概念構成, 方法論 그리고 그 結果 및 해석에 대한 批評을 쓴 critic paper이다. 各者の paper를 복사하여 學生 모두가 한 부씩 갖게 하는 동시에 學科時間에 發表케 하고 討議를 하게 한다. 그 結果를 評價하여 중간시험으로 代置할 때도 있다. 學期의 후반기에 들어 가서는 review paper를 提出케 하는데 5편 이상의 研究論文을 선정하여 같은 형식으로 評을 가하고 綜合함으로써 研究題目에 따른 概念化 및 方法論的 制限點을 지적하고 동시에 改善·向上策을 제안케 하는 것이다. 學期初에 강의요목(목적과 내용)과 숙제물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만큼 學生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숙제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時間을 각자 갖

게 된다. 각자의 paper를 學期의 마지막 시간에 發表케 하며 한 부씩 돌려 갖게 한다. 教授는 각자의 paper에 대하여 評을 해 줌과 동시에 전반적인 強點과 弱點을 지적해 주며, paper의 內容과 質에 따라 成績을 反映한다.

이와 같은 course work을 통해서 學生들은 學科目의 主題에 대한 知識뿐만 아니라 他人의 研究物을 分析·統合하는 能力과 概念化의 技術을 습득케 된다. 學生들은 또 研究에 대한 理解와 學位論文의 題目選定 및 設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기도 한다. 한편 매학기가 끝날 때마다 講義內容과 組織, 發表能力, 學生에 대한 관심과 태도, 성적평가 방법 등에 대해 學生들로부터의 교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學生들의 성적평가에 있어 客觀式이나 主觀式 筆記試驗을 피하고 paper로 대체하는 것이 좋았으며, 이러한 방식은 특히 研究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評을 받았다. 碩士 및 博士의 學位授與制度는 大學마다 다르기 때문에 一律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筆者가 속해 있는 Catholic大學校의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碩士學位는 所定の 學科目을 이수하고 규정된 학점(예: 教育行政의 경우 32 semester credit hours)을 취득한 후 綜合試驗에 合格됨으로써 받게 된다. 大學에 따라서 또는 같은 大學校內의 學科에 따라서 所定の 학점만 취득하면 종합시험 없이 거의 自動的으로 學位를 수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學生이 碩士論文을 쓴다면 4학점 상당의 學科目 이수를 면제받게 된다.

博士課程의 學生은 碩士課程을 이수한 者로서 30여 학점을 더 취득하고 綜合試驗에 合格되어야 論文計劃書를 提出할 수 있다. 論文計劃書는 대체로 指導教授와의 合意下에 작성되며 지도교수 외에 두 教授(그중 한 教授는 外部人士로 代置할 수 있음)로 구성된 Thesis Committee의 修正·同意를 얻은 후 소속 學長에게 보고하여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의 論文計劃書審査委員長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大學院委員會의 承諾을 받아야 研究를 推進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論文이 完成

되면, 論文指導委員들의 合意를 얻어 最終審査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所屬學長이 추천한 他大學(同一 大學校內의) 正教授 두 분이 심사위원장과 서기가 되며 세 사람의 論文委員會를 포함한 5인의 투표결과로써 合格與否가 결정된다. 규정상으로 委員간의 異議가 있을 때 5人中 3인의 찬성이 있어야 通過되도록 되어 있으나 대개의 경우 全員一致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留意할 점은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過程에서 세 지도교수 외의 심사위원들이 지나친 간여를 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大學 또는 전반적인 大學院 水準에서의 조정 및 자문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교적 큰 大學에서는 前記한 바와 같은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디까지나 論文指導教授와 委員들의 責任下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博士學位論文 指導에 있어서 擔當指導教授의 역할이 중요하다. 研究題目 선정에서부터 計劃書 및 論文을 작성하는 形式에 이르기까지 담당 교수의 관심과 기호가 作用하게 된다. 筆者는 論文計劃書 作成時 學生들에게 研究에 포함될 2개 이상의 概念을 分明하게* 規定하고 細分하는 동시에 각 개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模型을 개발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모형은 대개의 경우 관련된 연구자료의 개관 分析에서 얻어지지만 研究者 자신의 독창적인 思考의 過程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적어도 博士學位 論文에는 研究分析을 위해 이러한 概念的인 模型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철저히 강조해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研究者의 研究目的과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되고 그로부터 分명한 假設을 끌어낼 수 있게 되며 假設檢證을 위해 적절한 統計方法의 사용과 結果 해석의 타당한 근거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教授의 一方的인 強要가 통하지 않으며 學生들 자신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學生의 立場에서 指導教授나 指導委員들의 意見에 맞지 않을 때는 다른 教授로 代置할 수도 있는 만큼 指導教授와 學生과의 關係는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學問研究가 保障되고 피차간의 意思가 존중되게끔 되어 있다.

Ⅳ. 맺는 말

4年餘에 걸친 留學生活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心的 고충도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學位를 취득했다는 成就感과 안도감은 말할 수 없이 컸었다. 한편 “博士”로서 무엇을 더득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學位授與의 目的이 平生을 두고 成就한 學問的 業績이나 完成된 課業을 포상하는 것이 아니고 獨自의 學問研究를 遂行할 수 있다고 認證하는 入門 檻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한결 마음이 가벼웠고 위로가 되었다.

그 후 研究와 教授生活을 계속하는 동안 研究의 機會가 없이는 publication을 낼 수 없고, publication이 미급할 때 教授職을 지속하기 어려운 與件을 더욱더 實感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研究는 教授의 先行要件이며 教授職을 성공시키는 基盤이 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大學院教育에 있어서는 教科目的 講義도 중요하지만 研究를 위한 概念化의 技術 (conceptual skills)과 方法論의 啓發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學位論文을 마치는 즉시 귀국하고자 했던 當初計劃이 일년 일년 지연되어 어언 10餘년이 지나고 말았다. 그간 美國 大學에서의 研究·教授生活을 돌이켜 볼 때 스스로 감개무량함을 금할 길 없다. 그것은 “適者生存”의 原則에 따른 치열한 경쟁속에서 緊張된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며, 더구나 富의 價値가 專門性을 희롱하는 듯한 社會的인 與件下에서 教授職을 고수한다는 것은 건디기 어려운 試練과 갈등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10년이면 江山도 변한다”는 옛말 이상으로 눈부시게 變化된 祖國의 모습과 大學社會의 擴充, 그리고 學問的 成長을 보았을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새삼스런 감회가 컸다. 앞으로 지금까지 연마해 온 經驗을 되살려서 부단히 專門的인 成長을 도모하면서 後進들의 學問的 도전에 對應할 수 있도록 더욱 努力할 것을 다짐해 본다. *